[장학회 3편] 허황된 시뮬레이션

수익사업 연 18억 장담하더니 고작 9억 뿐

허황된 시뮬레이션...첫 단추부터 잘못 돼

"사실상 속인 것"...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나?

<그림1>KBS노조와 사측의 합의서

새로운 장학금 제도에 따른 실무합의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수익사업의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2015년 말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성실히 협력한다.

□ **수익사업 목표금액 : 25억**(세후)

구분	목표금액 (세전)	비고
① 주차장	年 16억	실제는 5억
② 웨딩	年 3억	단, 목표금액 달성을 위한 세부내용은 가감조정이 가능하다.
③ 자판기	年 1억	
④ 공제회	年 5억	1억
⑤ 발전기금	年 6억	3억
합계	年 31억	

2013. 12. 31.

사측대표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본부장 문 창 석 (인)

노측대표
KBS노동조합
사무처장 김 종 우

현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는데 기초가 된 KBS노조와 사측의 합의서다. 회비 이외에 수익사업으로 연 25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터무니없는 허황된 계획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KBS노조가 수익금을 전액 출연하기로 한 주차장, 웨딩, 자판기의 경우 목표금액을 20억 원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현실은 한 해에 고작 5억 원에 불과하다. 공제회의 경우 5억의 수익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1억에 그치고 있고, 발전기금 6억 원도 복지카드에서 발생하는 3억 원의 수익이 전부다. 종합하면 목표금액은 25억 원이지만 실제 들어오는 수익금은 절반인 9억 원에 불과하다.
  이 실무합의서는 기준기여도를 40%로 놓고 만든 것이고, 이후 기준기여도를 50%로 높인 최종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졌다. 이 시뮬레이션이 현재 장학금 제도의 기준이 됐다. 기준율을 조금 조정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림2>장학금사업 수입/지출 시뮬레이션

수입/지출 예상 시뮬레이션

년도	수입				지출			* 누계	
	* 수익사업 수입	장학회비	* 소급분	수입 합계	장학금 원금	각출 원금	지출 합계		
2014	600	2,038	1,470	4,108	3,376	235	3,612	496	3,273
2015	1,500	2,038		3,538	3,105	340	3,446	598	1,698
2016	1,800			3,838	-	-	-	4,448	2,038
2017	1,800			3,838	-	-	-	8,375	2,038
2018	1,800	2,038		3,838	2,579	733	3,311	9,069	1,305
2019	1,800	2,038		3,838	3,776	1,201	4,976	8,113	837
2020	1,800	2,038	실제 회비	3,838	3,863	1,440	5,303	6,810	598
2021	1,800	2,038	1,942	3,838	3,844	1,600	5,444	5,340	438
2022	1,800	2,038	1,841	3,838	3,803	1,684	5,487	3,797	354
2023	1,800	2,038	1,720	3,838	3,405	1,711	5,116	2,595	327
2024	1,800	2,038	1,652	3,838	2,089	1,172	3,261	3,224	866
2025	1,800	2,038	·	3,838	2,169	1,316	3,486	3,641	722
2026	1,800	2,038	·	3,838	2,039	1,316	3,355	4,197	722
2027	1,800	2,038	·	3,838	2,513	1,630	4,143	3,977	408
2028	1,800	2,038	·	3,838	2,390	1,454	3,844	4,050	584
2029	1,800	2,038	·	3,838	3,603	2,258	5,861	2,108	- 220
2030	1,800	2,038	1,119	3,838	4,005	2,542	6,548	- 560	- 504
2031	1,800	2,038		3,838	2,853	1,934	4,787	- 1,520	104
2032	1,800	2,038		3,838	1,151	906	2,057	231	1,132
2033	1,800	2,038		3,838	1,209	909	2,118	1,956	1,129
		42,229				24,382		17,847	

→실제로는 9억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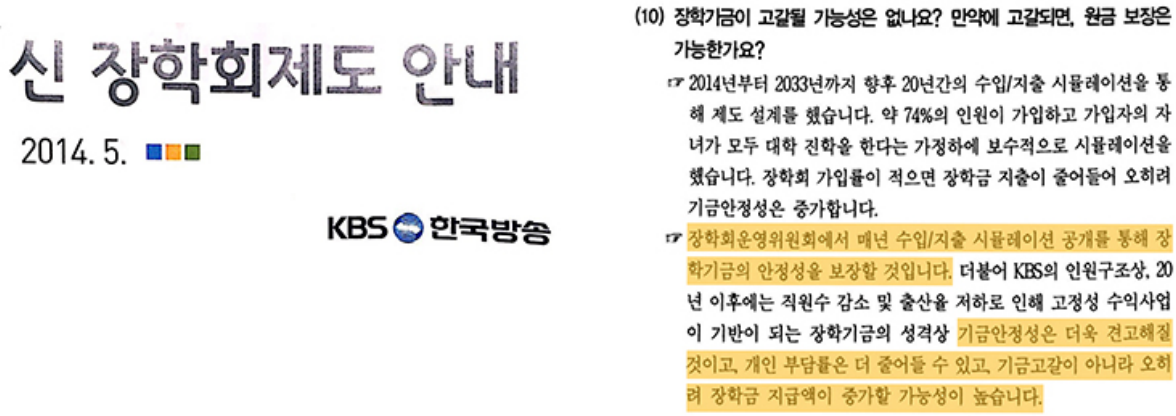
급격히 감소

※ 예상치이므로 변동 가능합니다.
* 수익사업 수입 : 2014, 15년도는 현재 수익에 기초하여 작성, 향후 2014년 7월부터 수익사업 위원회 가동하여 점진적으로 수익 증가 반영.
* 소급분 : 조기 재원 마련을 위해 노사합의로 2014년도에 한해 2013년도 소급분의 40% 장학회비로 납부.
* 누계 : 전년도 잔액에 대해 2.0% 이자 반영.

먼저 이 시뮬레이션이 설정한 수익사업 수익금은 연 18억 원이다. 현실은 9억 원으로 반 밖에 되지 않는다.
장학회비에 대한 수입 예상도 엉터리다. 연 장학회비 수입을 20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뻔히 예상된 퇴직자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KBS 구성원이라면 대부분 알다시피 향후 5년 동안 1500명 정도의 퇴직자가 발생한다. 장학회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장학회가 퇴직자와 신규 가입자 추계 등을 감안해 다시 설정한 장학회비 예측은 최초 시뮬레이션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간신히 20억 원대를 유지하던 장학회비는 2021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030년에는 11억 원까지 떨어진다. 최초 시뮬레이션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예측이다.

과연 몰라서, 당시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이런 터무니없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림3>장학회 출범 당시 가입안내책자



신 장학회제도 안내

2014. 5.

KBS 한국방송

(10) 장학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없나요? 만약에 고갈되면, 원금 보장은 가능한가요?

☞ 2014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수입/지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약 74%의 인원이 가입하고 가입자의 자녀가 모두 대학 진학을 한다는 가정하에 보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장학회 가입률이 적으면 장학금 지출이 줄어들어 오히려 기금안정성은 증가합니다.

☞ 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입/지출 시뮬레이션 공개를 통해 장학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더불어 KBS의 인원구조상, 20년 이후에는 직원수 감소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정성 수익사업이 기반이 되는 장학기금의 성격상 기금안정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개인 부담률은 더 줄어들 수 있고, 기금고갈이 아니라 오히려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4년 새로운 장학회가 출범하면서 직원들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배포한 안내책자이다.

“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입/지출 시뮬레이션 공개를 통해 장학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할 할 것이다”
“기금안정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개인부담률은 더 줄어들 수 있고, 기금고갈이 아니라 오히려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KBS노조와 사측이 장악한 운영위원회는 단 한 번도 시뮬레이션을 공개한 적 없고, 기금은 견고해지기는커녕 2021년 완전히 고갈돼 파산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정황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장학기금의 부실화는 최초 설계 당시에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사실상 사원들을 속이고 장학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설사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재정 상태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 4년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겨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다음편에 계속...